

금호, 경영공백 우려 불식 “안도”

박찬구 회장 불구속기소로 ... 계열분리에 산은 CB전환 해결 기대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63) 회장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돼 안도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이 구속되면 경영공백이 우려됐으나 경영 정상화와 계열분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2월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박찬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2월1일 박찬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2월6일 기각한 바 있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이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며 “그러나 결국 박찬구 회장의 <구속> 사태까지 가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순풍을 타던 경영 정상화와 계열분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경영 복귀 1년 만인 2011년 3/4분기까지 매출 4조9681억원, 영업이익 781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

수출도 2011년 14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인 3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졸업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계열분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2012년 사업계획과 조직개편, 인사, 성과급 지급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많이 걱정했다”며 “회사 및 계열사 노조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는데 임직원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다”고 안도했다.

다만, 12월6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전환사채(CB)를 전량 주식으로 바꾸면서 최대주주(14.4%) 자리에 올라 경영권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박찬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상무의 지분은 총 13.9%로, 조카인 박철완 팀장의 지분 10.2%와 산은 지분을 합친 24.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산은의 CB 전환은 예전부터 예정돼 있던 사안”이라며 “오히려 경영 정상화가 거의 완료됐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 채무의 하나인 CB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19>